

주간 규제 정보

Vol. 422

2022. 10. 31 ~ 2022. 11. 06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 3
2. 피부 알레르기 걱정 그만! 니켈 없는 금속장신구를 이용하세요~ 4
3.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5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7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일본, PRTR 대상물질 목록 개정에 따라 SDS 및 라벨링 지침 개정 8
6. 미국 EPA, 2024-2028 HFC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입법예고 9
7. 인도, 법랑질에 대한 표준 개정안 입법예고 10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8. 태국 화장품 시장동향 12
9. 체코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1
10. 카타르 자동차 배터리 시장동향 28
11. 중국 연료전지 시장동향 30
12. 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SIRA) 도입 3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

-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성과공유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참조표준 :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

○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하였다.

< 참조표준 성과공유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0.27.(목), 14:00~17:30 /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

◇ 주요 내용 : 우수 개발사례 및 활용성과 공유, 기업간담회, 공모전 시상 등

◇ 참석자 : 표준정책국장, 40여개 데이터센터장, 데이터활용 기업인 등 80여 명

□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 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총 55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유기화합물 데이터센터장)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중력가속도 데이터센터장)는 「대한민국 고도지형(내륙·해저)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되었다.

○ (주)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 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 (주)제이엘케이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하였다. (산업부장관상 등 9점)
- 대상(장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빗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피부 알레르기 걱정 그만! 니켈 없는 금속장신구를 이용하세요~

- 국표원, 무(無)니켈 도금공정 개발 및 금속장신구 업계에 보급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중금속인 니켈(Ni)을 사용하지 않는 도금공정*을 개발하였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 니켈(Ni)을 대신하여 세 가지 금속(구리, 주석, 아연)을 사용하는 도금공정으로, 각 원료의 비율과 작업 조건(전압, 전류, 온도, pH 등)을 최적화

- 니켈(Ni)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금속장신구의 광택도 및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제품의 표면 도금에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나,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있는 중금속 물질로 알려져 있다.

* 니켈이 함유된 금속장신구 착용시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부종 등 발생 우려

- 이에, 국표원은 금속장신구 안전관리를 위해 「접촉성 금속장신구 안전기준(생활용품)」 및 「어린이용 장신구 안전기준(어린이제품)」을 마련하여 제품의 ‘니켈(Ni) 용출량’을 규제($0.5\mu\text{g}/\text{cm}^2/\text{week}$ 이하*)해 왔다.

* 일주일 동안 단위면적(cm^2) 당 제품표면으로부터 용출되는 니켈(Ni) 양이 $0.5\mu\text{g}$ 이하

- 그러나 보다 안전한 금속장신구 제품의 제조와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표원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니켈(Ni)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無)니켈 도금공정**을 개발하였다.

* KOTITI시험연구원, 한가람화학(주), 한국폴리텍 대학 등

<무(無)니켈 도금공정** >

- 공정 개요: 무(無)니켈 도금공정은 i) 전처리(세수) 공정과 ii) 도금공정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광택도, 내부식성)로 원료 비율 및 작업조건을 최적화
- * (도금공정) 무(無)니켈도금 → 귀금속 도금 → 수세 → 탈수 및 건조 → 검사
- 공정 특징: 기존 니켈 도금공정과 유사하나 추가적인 설비 및 고가의 첨가제 투입이 불필요하여, 금속장신구 도금에 적합

○ 또한, 활용성 제고를 위해 「무(無)니켈 도금공정 가이드라인」를 개발하여, 금년 11월 2일 ‘금속장신구 제품안전 세미나*’등을 통해 이를 관련 업계에 널리 전파한다.

* (일정/장소) 2022년 11월 2일(수) 오후 1시 / JW메리어트(서울 반포) 그랜드볼룸(5층)
(주최/주관/참석자) 국가기술표준원 / KOTITI시험연구원 / 장신구 및 표면처리 업계, 협회, 단체, 인증기관 등 20여 개사 50여 명

○ 본 세미나에서는 금속장신구 및 표면처리(도금)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무(無)니켈 도금공정 세미나 및 금속장신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동 공정을 통해 제조한 무(無)니켈 제품을 전시하는 등 금속장신구 제품 안전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세기업이 다수인 금속장신구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무(無)니켈 도금공정을 개발하였다”라고 강조하며,

○ “향후 무(無)니켈 도금공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안전한 금속장신구 제품이 제조·유통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국제표준안 13종 제안 -
- 우리나라가 제안·설립한 양자기술 표준화 회의 주도 -
- 미국과 자율차·양자기술·나노기술 분야 표준협력 강화 -

□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 적합성평가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1906년 설립, 우리나라는 1963년도 IEC에 가입(국제표준 7,201종 보유, '22.10월 말 기준)

<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 개요 >

○ (기간/장소) 2022.10.31.(월)~11.4.(금)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참가대상) 76개국 2,000여명 대표단 참석

※ 국가별 현황 : (한)170명, (미)310명, (독)190명, (영)80명, (프)70명, (중)110명, (일)290명

○ (주요행사) 총회, 정책위원회, 회장·간사 포럼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 등 개최

※ 반도체, 나노기술, 연료전지, 스마트제조 등 72개 기술위원회 회의 개최

< 국제표준안 제안 : 13종 >

□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S일렉트릭, ETRI, 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산·학·연 표준 전문가 1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신규 작업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

○ 제안된 국제표준안 13종은 ①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신뢰성 평가방법 등 반도체 분야 5종, ②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측정방법 1종, ③그래핀** 환원도 분석 평가방법, 그래핀 기반물질 비표면적 측정방법 등 나노기술 분야 7종이다.

* 뉴로모픽: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로 연산성능 1 PFLOPS(1초당 1,000조번 연산), 초저전력(1mW) 등 세계최고 성능·전력효율 구현

** 그래핀: 벌집모양 평면구조로 결합된 탄소(C)로 이뤄진 나노물질, 전기전도성이 구리보다 약 100배 우수, 금속에 비해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

○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분야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표준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 국제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 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 양자기술 표준화 회의 주도 >

□ 이번 총회와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설립한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평가그룹(SEG)* 제1차 회의도 개최되었다.

* 표준화평가그룹(Standardization Evaluation Group, SEG)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내 첨단기술 표준 분야 조직 신설, 신규 표준화 과제를 설계하는 특별 조직

○ 지난 6월에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으로 선임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성수 단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및 로드맵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에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본격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미국과 표준협력 강화 >

□ 이번 IEC 총회가 미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국 기업·연구소와의 표준협력 회의를 통해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표준원(ANSI)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미 표준협력

대화 출범, '21.12월)하였으며,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IEC 미국 총회를 계기로 양자기술(IBM), 자율차(테슬라), 나노기술(하버드대학), 지능형 로봇(보스턴다이내믹스)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고자 미국의 기업·연구소를 방문하여 한-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가 표준리더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도시·지역연구 특별프로그램(SPURS)*을 운영하고 있는 MIT 대학과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 * 도시·지역연구특별프로그램(Special Program for Urban and Regional Studies, SPURS) : 개발도상국 중간 경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개발·계획 능력 성장지원(52년 동안 123개국 739명)
- 미국과는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표준협력을 추진하고, 제품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 “연구개발과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식약처, 국외시험·검사기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을 10월 31일 개정·시행합니다.
- * 수입식품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식약처의 시험검사 품질관리 능력 평가를 거쳐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관리(총 59개소, 최초 지정 후 4년 주기로 지정 연장 여부 평가 실시)
- 이번 시행규칙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에 대한 평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국외시험·검사기관의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국외시험·검사기관 재지정 절차 개선 등입니다.

-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대유행 등 현장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상회의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검사 시설·장비 구축, 시료의 관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지정 절차 개선) 그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재지정 신청 2년 이내에 해당국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현장평가**를 받고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적합성을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지정을 위한 식약처의 추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 시험·검사 시설·장비의 적합성, 시험·검사자의 전문성 등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5. 일본, PRTR 대상물질 목록 개정에 따라 SDS 및 라벨링 지침 개정

2021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3년 4월 1일부터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수를 562개에서 649개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링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 및 이동등록법(PRTR***)의 물질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Ministry of Trade, Economy and Industry

** Safety Data Sheet

***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PRTR 법률에 따라 기업은 등록부에 포함된 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 간에 전송할 때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SDS 및 라벨에 대한 필수 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및 혼합물 분류 시스템
- PRTR에 해당하는 물질 목록
- SDS 전달 방법
- * Globally Harmonized System

개정된 지침은 매년 10월과 2월에 열리는 부처의 연례 세미나에 맞춰 지난 10월 4일 METI 홈페이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5369/japan-updates-guidance-for-prtr-sds-and-labelling>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6. 미국 EPA, 2024-2028 HFC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입법예고

미국 환경보호국(EPA*)는 지난 10월 20일 2024-2028년 동안 수소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칙을 입법예고 하여 45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Hydrofluorocarbon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은 EPA가 2036년까지 미국에서 HFC의 생산 및 소비를 8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단계적 축소는 HFC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글로벌 합의인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키갈리 수정안의 일정과 일치합니다.

*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2022-2023년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허용 한도를 기준선 수준의 90%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5년 단계에서는 이 상한선을 60%로 낮춥니다.

EPA는 2011-2019년 기간 동안 업체의 최고 생산 또는 수입 연도 3년의 평균을 사용하여 허용량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2022-2023년에 시장에 진입한 회사를 HFC 생산 및 소비 허용량의 "일반 풀(general pool)"에 통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는 "별도 풀(set-aside pool)"에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4-2028년 동안 EPA는 다른 할당량 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EPA는 전체 소비 기준선을 3,629,631미터톤의 교환 가치 등가물(MTEVe*) 또는 약 1%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Metric Tons of Exchange Value equivalent

제안은 또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기업이 할당된 후와 만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할당량을 이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수입 활동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역년 수당과 이를 누가 지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의 기준

관행을 성문화합니다.

- 수입자가 '힐(heel)'의 정확한 부피나 무게 또는 컨테이너에 남아 있는 HFC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할당 지출을 결정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수립합니다.
- "영구적 라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라벨링 요구사항에 "더 많은 세부사항 및 특수성"을 추가합니다.
-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수정하고 확장합니다.
- 샘플링 및 테스트 요구 사항을 수정합니다.

EPA는 이 규칙 제정을 통해 수립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2023년 10월 1일까지 2024년도 허용량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95586/us-epa-proposes-rule-for-determining-20242028-hfc-allowances>

<https://www.epa.gov/climate-hfcs-reduction/proposed-rule-allowance-allocation-methodology-2024-and-later-year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7. 인도, 법랑질에 대한 표준 개정안 입법예고

인도표준국(BIS*)은 인테리어 언더코팅 및 마감 페인트에 사용되는 에나멜 (법랑질)에 대한 개정된 표준에 대해 입법예고하여 11월 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

** Indian Standard

9월 30일 BIS에서 발행한 표준 개정안안은 에나멜에 대한 사양과 시험방법, 시험을 위한 샘플 준비, 시약 품질, 표준화된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개정된 표준은 납 및 납 화합물에 대한 최대 허용 한도를 90ppm으로 제안합니다. 또한 안료 및 증량제를 포함한 비휘발성 물질의 최대 허용 한도는 5%이며, 제조업체는 프탈산 무수물이 10%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물질을 '합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페인트 샘플은 시험이 종료되면 승인된 시험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공급자가 보관하는 에나멜 성능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IS는 또한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가 구매자에게 공급된 페인트가 테스트를 거친 샘플과 동일한 배합비에 따라 제조되었으며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보다 낮은 성능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포장 및 표시에 다음 필수 요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체명
- 원료명
- 마감용 또는 언더코팅용
- '합성' 여부
- 최대 납 함량

- 배치 번호
- 제조년월

개정된 표준 초안은 또한 용기에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먹거나 씹으면 유해한 물질의 건조 필름’
‘삼키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589959/india-consults-on-revised-standards-for-ename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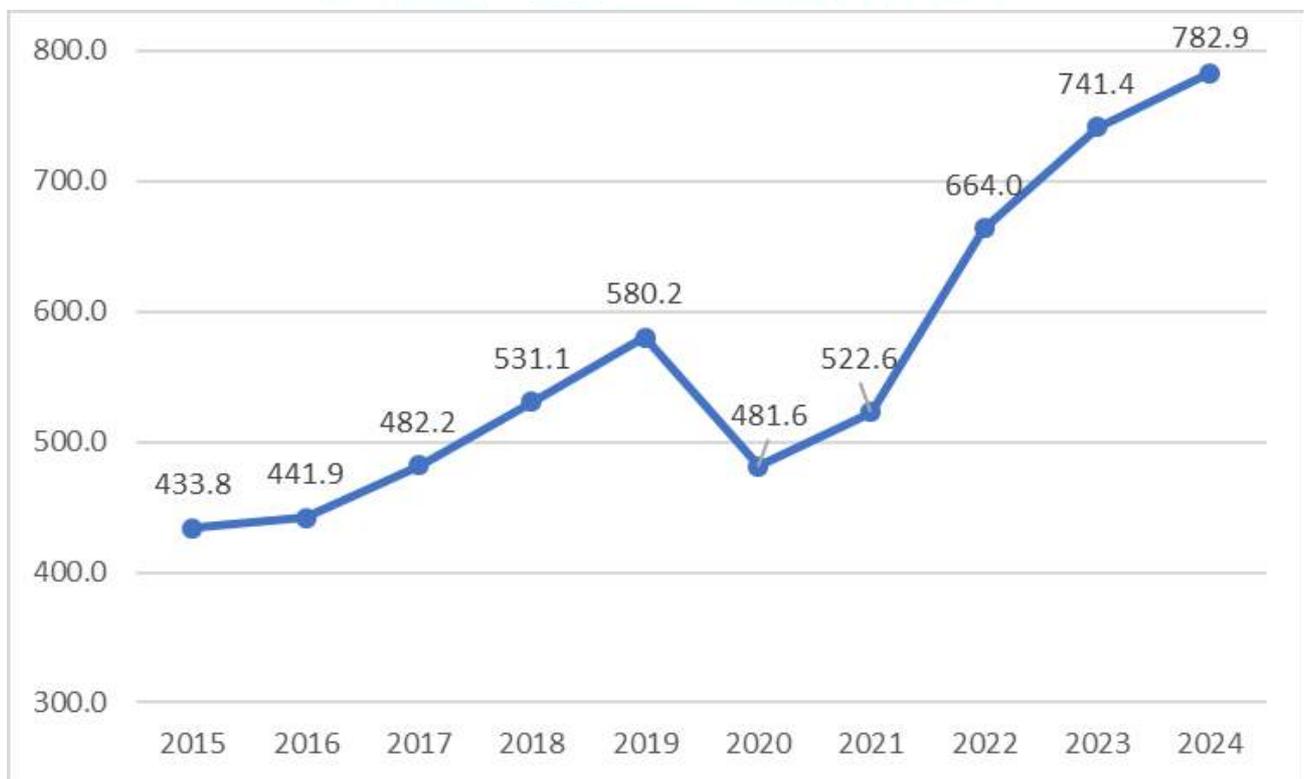
8. 태국 화장품 시장동향

- 올해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 6억6400만 달러 예상, 일상 회복과 함께 회복세
- All-in-one 또는 하이브리드 복합효능 제품 수요 높아

시장 동향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7%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각종 모임 및 여행 규제에 따른 외출 감소가 화장품 수요 감소로 연결됐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화장품 수요 감소를 부추겼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행 규제가 완화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또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시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Statista는 태국 화장품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는 7억80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

수입 동향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태국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입 금액은 4억4800만 달러로 2019년 9억600만 달러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다. 한국은 태국의 2위 화장품 수입국가로 2022년 1~7월 누계기준 수입액 4억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태국 화장품(HS3304.99)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입 규모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9	2020	2021	2022 (1~7월)	2019	2020	2021	2022 (1~7월)	
전체	905,723	515,164	447,634	269,242	100	100	100	100	2.50
프랑스	164,951	76,077	69,707	50,947	18.2	14.8	15.6	18.9	19.83
한국	82,494	76,238	67,899	40,793	9.1	14.8	15.2	15.2	-1.16
일본	160,340	84,539	93,492	40,033	17.7	16.4	20.9	14.9	-25.73
미국	102,693	66,051	58,934	29,039	11.3	12.8	13.2	10.8	-19.69
인도네시아	44,269	39,375	37,029	21,177	4.9	7.6	8.3	7.9	-5.93
중국	57,059	28,287	20,573	14,286	6.3	5.5	4.6	5.3	9.90
스웨덴	5,321	5,486	5,878	10,713	0.6	1.1	1.3	4.0	143.43
벨기에	14,813	5,053	11,473	10,315	1.6	1.0	2.6	3.8	109.64
싱가포르	99,715	23,314	3,449	7,477	11.0	4.5	0.8	2.8	338.65
베트남	8,844	7,184	8,499	6,516	1.0	1.4	1.9	2.4	17.26

주: 2022년 1~7월 수입 규모 상위 10개국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품목별 수입동향

시장조사기관 Global Trade Atlas(GTA)의 2022년 1~7월 누적통계 기준 태국의 품목별 화장품 수입동향 통계에 따르면 스킨 크림·로션이 54%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화장품이 46%로 그 뒤를 따르며 두 품목의 합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여드름 방지 크림의 비중은 0.1%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태국 화장품(HS3304.99)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 Code	품목명	수입규모	비중
전체	-	전체	269.2	100.00%
1	33049930	스킨크림·로션	146.3	54.4%
2	33049990	기타	122.6	45.6%
3	33049920	여드름 방지크림	0.2	0.1%

주: 2022년 1~7월 수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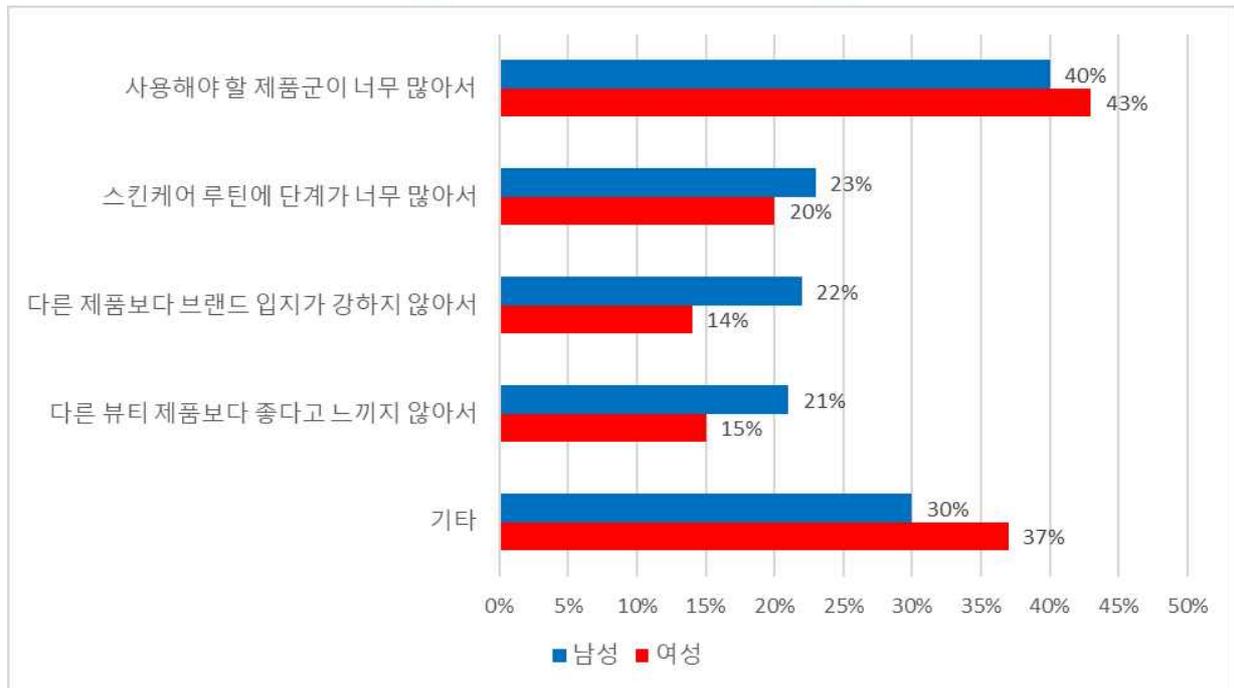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한국 제품 선호 동향

시장조사기관 Statista의 태국 내 한국 뷰티 제품 선호도 조사 통계에 따르면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413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사용해야 할 제품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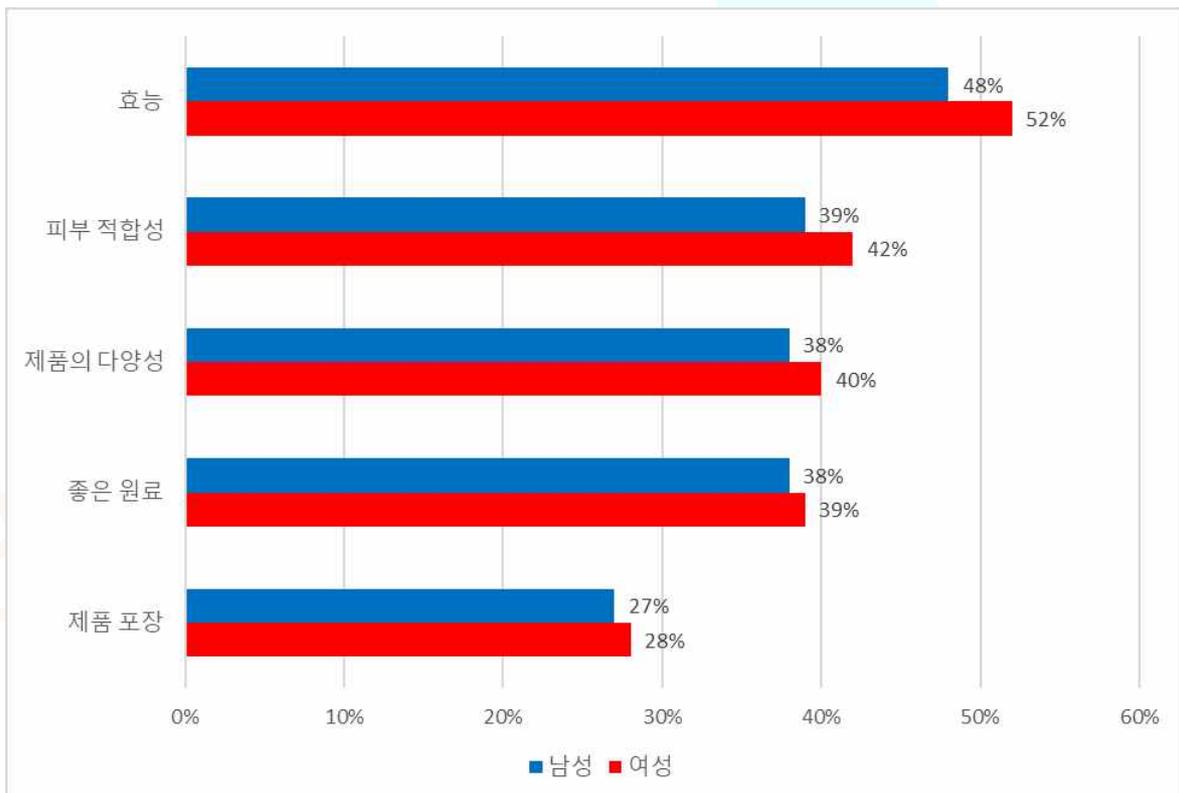
너무 많다'와 '스킨케어 루틴에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고 답변한 53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로 '제품 효능'과 '피부 적합성'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주: 남성 2,041명, 여성 2,093명 응답, 복수선택 가능
[자료: Statista]

<한국 뷰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주: 남성 1,516명, 여성 3,788명 응답, 복수선택 가능
[자료: Statista]

경쟁동향 및 유통구조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의 2022년 태국 화장품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소매 규모 기준 태국 화장품 브랜드 순위 중 한국 아모레퍼시픽의 Laneige는 19위를 기록했으며, 1위부터 5등까지는 태국과 미국이 각각 3개와 2개씩 기록했다.

<태국 화장품 브랜드 순위>

순위	브랜드명	브랜드 로고	기업정보
1	Artistry		- 본사: 미국 - 회사명: Amway (Thailand) Ltd
2	Giffarine		- 본사: 태국 - 회사명: Giffarine Skyline Unity Co Ltd
3	Oriental Princess		- 본사: 태국 - 회사명: SSUP (Thailand) Co LTD - 브랜드 직영 매장 개수: 346개
4	Mistine		- 본사: 태국 - 회사명: Better way (Thailand) Co Ltd - 브랜드 직영 매장 개수: 6개
5	Maybelline New york		- 본사: 미국 - 회사명: L'Oréal Thailand Co Ltd

기준: 2021년 브랜드 소매 규모 기준

[자료: Euromonitor, 각 기업 홈페이지]

태국 화장품 기업 순위에서 아모레퍼시픽은 기업 점유율 14위를 기록했다. 1위부터 5등까지 역시 미국과 태국 기업이 우세하다.

<태국 화장품 기업 순위>
(기준: 2021년 기업 소매 규모 기준)

순위	기업명	브랜드 로고	기업정보
1	Elca (Thailand)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미국 - 태국 내 매장 수: 308개 - 자본금: 1000만 바트 - 2021년도 매출: 45억 바트 - 총 9 개의 브랜드를 운영
2	L'Oréal Thailand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미국 - 태국 내 매장 수: 156개 이상 - 자본금: 2억 바트 - 2021년도 매출: 90억 바트
3	Amway (Thailand)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미국 - 태국 내 매장 수: 83개 - 자본금: 200만 바트 - 2021년도 매출: 187억 바트
4	Giffarine Skyline Unity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태국 - 태국 내 매장 수: 111개 - 자본금: 1억5000만 바트 - 2021년도 매출액: 48억 바트
5	SSUP (Thailand) Co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태국 - 태국 내 매장 수: 725개 - 자본금: 7800만 바트 - 2021년도 매출액: 30억 바트

[자료: Euromonitor, Corpus X, 각 기업 홈페이지]

<태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기업명	브랜드	로고	기업정보
AMOREPACIFIC (THAILAND) Co Ltd	Sulwhasoo, Laneige, Etude House, Innisfree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 연도: 2004년 9월 - 자본금: 6억6000만 바트 - 2021년 매출액: 13억 바트 - 태국 내 브랜드 운영 매장 수: 225개 - 비고: 태국 내 화장품 기업 점유율 14위, 아모레 퍼시픽의 Laneige는

			브랜드 점유율 19위 기록
MP한강 (수출기업)	Lilybyred	lilybyred	- 태국 내 브랜드 운영매장 수: 68개 - 비고: Royal Thai Cosmetic Co., LTD를 통해 수입 및 유통해 Eveenboy, Kis, Beautrium 등의 매장을 통해 판매
LG HOUSEHOLD & HEALTH CARE (THAILAND) Co Ltd	Whoo, The Face Shop	THE FACE SHOP	- 진출 연도: 2018년 6월 - 자본금: 2억 바트 - 2021년 매출액: 4억 바트 - 태국 내 브랜드 운영 매장 수 :99개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Corpus X, 방콕 무역관 종합]

<태국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매장>



[자료: 각 브랜드 홈페이지, Central Ladprao 홈페이지]

브랜드 매장을 오픈하지 않고도 태국의 종합 화장품 판매 매장인 Sephora와 Watsons를 통해서 유통하거나 라자다(Lazada), 쇼피(Shopee), 콘비(Konvy)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유통할 수 있다.

<태국의 종합 화장품 판매 매장>

연번	매장명	매장특징	로고
1	Sephora	- 태국 내 운영 매장 수: 12개 - 프랑스 LVVH Moët Hennessy Louis Vuitton의 자회사 - 특징: 중저가부터 고가 브랜드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브랜드 판매 중	
2	Watson's	- 태국 내 운영 매장 수: 642개 - 홍콩 AS Watson Group의 자회사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방콕무역관 종합]

관세율

화장품 수입 시 30%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RCEP 협정세율 시 27%의 관세가 부과되며, 한-ASEAN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태국 화장품(HS 3304.99) 수입관세>

HS코드	3304.99
품목명(한글)	기타
품목명(영문)	Other
수입관세	- 일반세율: 30%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면제 - RCEP 협정세율: 27% (원산지 증명서 제출 필요)
부가가치세	7%

[자료: 태국 관세청 통합관세조회 시스템]

인증 절차

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태국 화장품 법(The Cosmetic Act B.E. 2558 (2015))에 따라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되며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수입 전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인증 절차는 크게 태국 FDA 직접 방문 등록과 온라인(E-submission) 접수로 나누어진다.

<태국 FDA 직접 방문 화장품 인증 절차>



[자료: 태국 화장품법 고시문]

<온라인 화장품 인증 절차>



주: <http://privus.fda.moph.go.th>

주: Open ID 설정을 위해서는 태국 주민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신고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자료: 태국 화장품법 고시문]

태국 FDA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품시험 대신 『화장품 제조 성분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성분은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 표준에 맞게 표기되어야 하며, 정확한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태국 FDA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며, 수입 시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제품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 통관 후 30일 이내 및 제품 판매 전 태국어 라벨 부착이 필수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Kotra에서 발간한 ‘쉽게 풀어쓴 태국 의료기기·화장품 등록 및 인증 절차’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10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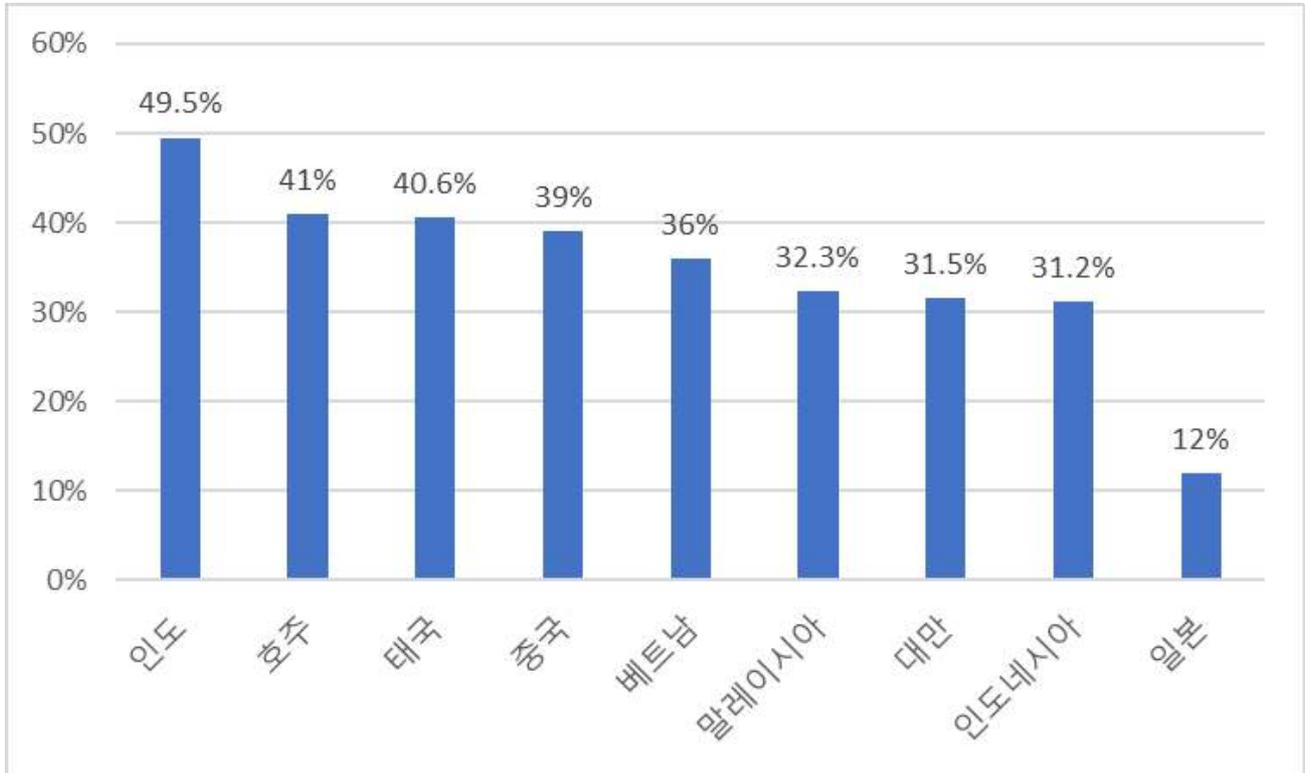
시사점 및 전망

방콕 엠쿼티어 백화점 Sephora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KOTRA 방콕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최근 시간 절약에 용이하고 사용법이 간단한 All-in-one 또는 다양한 트렌드를 섞은 복합 효능의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국 뷰티 제품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용해야 할 제품군이 너무 많다’와 ‘스킨케어 루틴에 거쳐야 할 단계가 너무 많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만큼 우리 기업은 이 점을 참고하여 태국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한국 뷰티 인기도 지수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내 전체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태국내 한류 인기가 높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한 높은 만큼 우리 기업은 태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뷰티 제품 인기도>



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 기준

[자료: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022 태국 방콕 화장품원료 전시회(In-Cosmetics Asia)'가 개최될 예정이며, 12월 15일부터 17일에는 'K-Beauty Expo Bangkok 2022'가 개최될 예정이다. 태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In-Cosmetics Asia 2022 개요>

행사명	In-Cosmetics Asia 2022
개최기간	2022년 11월 1~3일 (3일간)
개최장소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BITEC) EH99, 태국 방콕
전시품목	화장품 원재료, 화장품 용기, 화장품 개발 관련 신기술 등
개최규모	521개사 2,098 전시 제품(2019년)
참관객	11,914명(2019년)

<K-Beauty Expo Bangkok 2022 개요>

행사명	K-Beauty Expo Bangkok 2022
개최기간	2022년 12월 15~17일 (3일간)
개최장소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BITEC) EH99, 태국 방콕
전시품목	화장품, 헤어, 네일, 에스테틱, 원료 등
주최/주관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KINTEX)
개최규모	150개사 250부스

참관객	10,000명
-----	---------

끝으로 태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위조상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K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에 역시 손상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국정부가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를 강화해 나가는 만큼 태국에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유사 위조 상품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표 및 디자인 특허에서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국 시장 내 위조상품이 유통될 경우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태국 지식 재산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방콕 무역관에 소재한 방콕 IP-DESK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Statista, Global Trade Atlas(GTA), Euromonitor, Corpus X, 각 기업 및 브랜드 홈페이지, 태국 관세청 통합관세조회 시스템, 태국 식약청, 한국 국제문화교류 진흥원 및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체코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 2021년 자동차 생산 감소 후 회복, 부품 수요도 증가세
- 공급망, 에너지 위기 속에 전기차로 전환 가속화
- 한국은 체코의 주요 자동차부품 수입대상국으로 자리 굳혀

상품명 및 HS코드

- 상품명: 자동차 부품(차체 부품)
- HS코드: 8708, 870829

시장동향

유럽 4대 자동차 생산국인 체코는 자동차산업이 산업생산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승용차(스코다, 현대, 도요타), 버스(SOR, IVECO), 트럭 및 상용차(Tatra, Zebra) 등의 완성차 제조사와 930여개 자동차부품 공급사가 체코에서 제품을 생산 중이다.

체코 자동차산업은 금융위기('09년) 이후 매년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해 왔으며 2020~2022년은 코로나 19와 러-우 전쟁으로 타격을 받았다. 2020년 체코 자동차 부품기업의 매출은 4148억 코루나(약 165억 달러)로, 감염확산에 따른 생산차질, 반도체 및 원자재 공급 문제 등으로 체코 자동차 생산과 부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큰 폭(13.2%)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체코 승용차 생산이 감소(-4.1%)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은 수출성장(+5.6%)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4471억 코루나(약 17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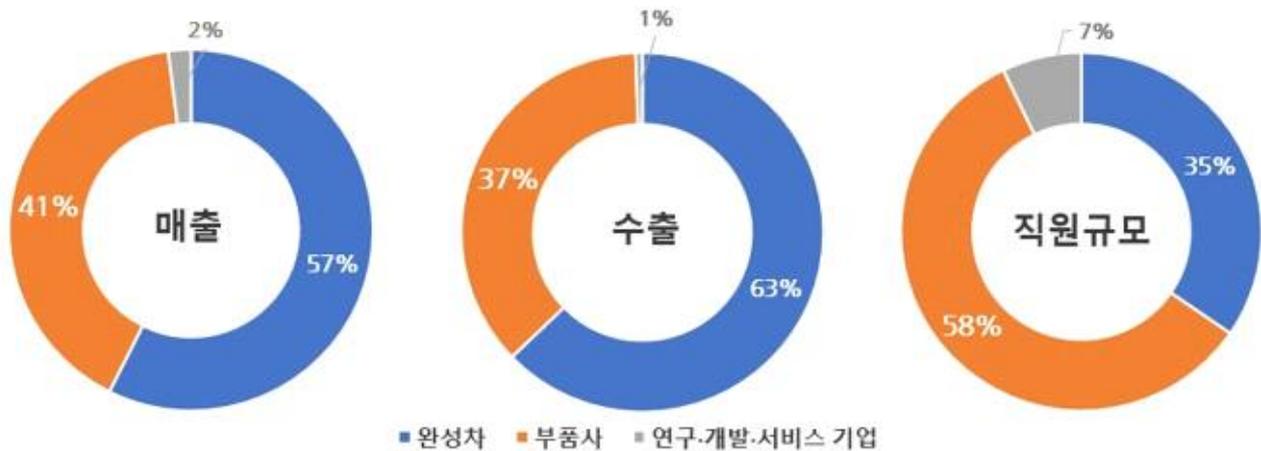
<체코 자동차 부품기업 및 자동차 산업 매출 규모>
(단위: 억 코루나)



[자료: 체코 자동차산업협회(AutoSAP)]

자동차부품 역시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21년 기준 체코 자동차부품 매출은 전체 자동차 산업의 41% 차지하고, 자동차부품 수출(3340억 코루나[약 133억800만 달러]) 비중은 37%에 달했다. 자동차부품 기업의 직원수는 약 8만명으로 전체 자동차산업 고용규모의 절반 이상인 58%를 차지해 고용창출에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전체 체코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부품 위치/비중>
(단위: %)



[자료: 체코 자동차산업협회(AutoSAP)]

수요 시장(자동차 생산 및 등록) 현황

체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2021년 기준 111만대(승용차 110만5223대, 버스 4947대, 트럭 1262대)로, 하반기

반도체 공급 차질 심화로 인해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2022년에도 반도체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러-우 사태 발발로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차질*을 겪고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 우크라이나로부터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차질로 2022년 3월 스코다는 전기차 Enyaq 생산 8주간 중단

2022년 5월부터는 반도체 공급이 일부 나아지면서 전년 생산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6~8월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생산량 수준으로 회복 조짐을 보였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3사 중 유일하게 올해 차질없이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2019년 생산량(30만9500대)을 넘어선 32만1000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자동차부품기업의 비용상승과 더불어 소비자도 지출을 줄여 내수 위축이 전망되고 있다. 일부 신차 출고시간도 지연되는 가운데 올해(1~9월) 체코 신차 등록 대수도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체코 자동차산업 협회 전무이사는 "1년 이상 반도체 문제를 겪은 후 마침내 자동차 생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8월에는 유럽의 자동차 생산과 신차 등록이 모두 증가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체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유지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2019~2022년 체코 월별 승용차 생산 대수>
(단위: 만 대)



[자료: 체코 자동차산업협회(AutoSAP)]

전기차 전환 지속으로 전기차 부품 생산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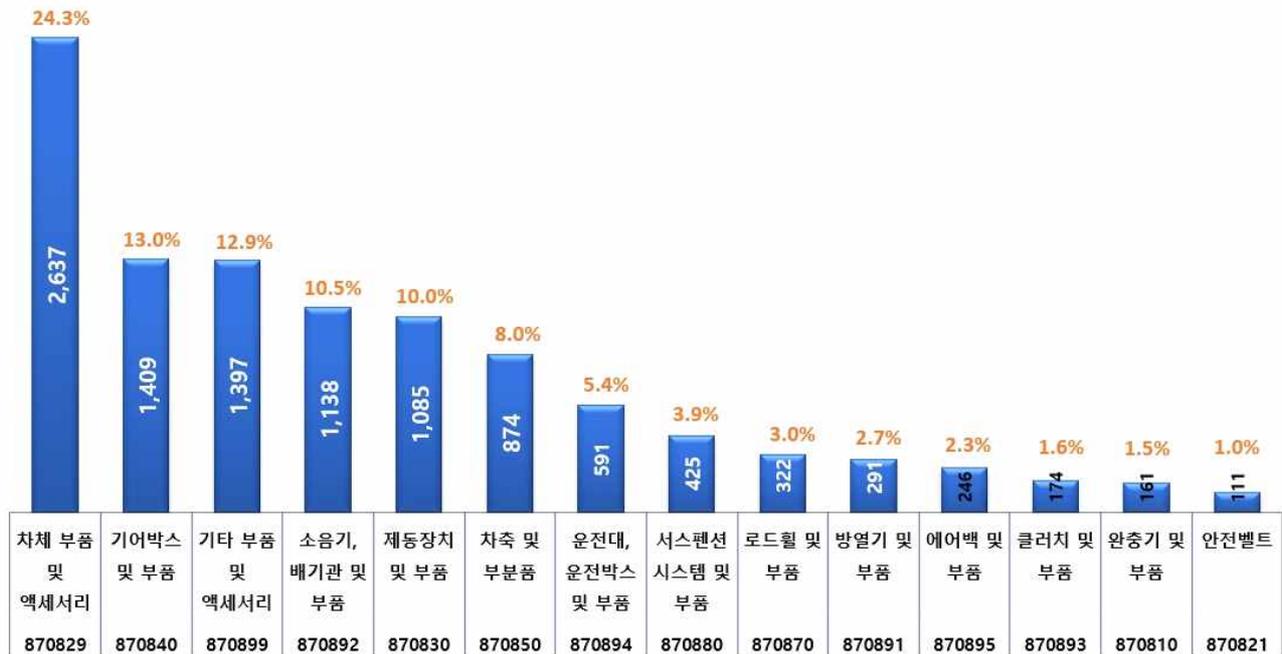
위기상황 속에도 전기차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스코다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BEV) 및 하이브리드(PHEV)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2만1262대(전체 승용차 생산의 11%)를 생산했다. 2022년 9월까지 전기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9만8637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품기업도 전기차 부품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체코 이흘라바(Jihlava) 지역에서 내연기관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Bosch Diesel은 전기차 부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전기 차축(Electronic axle), 전기차 모터 부품인 고정자(Stator), 회전자(Rotor)를 생산하고, 2025년부터는 전기모터(Electric motor)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Valeo는 2019년부터 체코 Žebrák 공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쿨러를 생산하면서, 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체코의 자동차 부품(HS코드 8708 기준)의 수입 규모는 2021년 기준 108억6180만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세부품목 중 차체 부분품(HS코드 870829)이 전체 수입의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어박스, 기타 부품 및 액세서리, 소음기 및 배기관, 제동장치 및 부품 등을 주로 수입했다.

<2021년 체코 자동차 부품(HS코드 8708) 수입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Global Trade Atlas]

자동차 차체 부품 수입(HS코드 870829)은 2021년 기준 26억3718만 달러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으나, 2022년(1~8월)은 소폭(-4.7%) 감소했다. 상위 10대 수입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국가이며, 독일, 폴란드, 한국, 3대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수입이 65.2%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유럽 외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11위), 터키(12위), 대만(20위), 일본(23위) 등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 진출로 체코의 주요 자동차 부품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1년 기준 체코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HS 8708기준)은 9억400만 달러, 전체 수입의 8%를 차지했다. 이 중 자동차 차체 부품 수입은 2억968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수입이 감소했던 2020년에 비해서는 9.5% 증가했으나, 2022년은 러-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체코 자동차 차체 부품(HS코드 870829)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국	금액			점유율			'22/'21 증감률
		2020	2021	2022 1-8	2020	2021	2022 1-8	
1	독일	872,760	959,857	611,914	38.1	36.4	34.3	-12.5
2	폴란드	326,421	501,799	359,699	14.2	19.0	20.2	4.0
3	한국	270,962	296,801	191,220	11.8	11.3	10.7	-5.2

4	슬로바키아	200,718	216,138	146,728	8.8	8.2	8.2	-8.6
5	프랑스	77,993	85,202	75,526	3.4	3.2	4.2	27.4
6	헝가리	91,901	98,064	64,816	4.0	3.7	3.6	-5.1
7	오스트리아	75,683	73,110	52,367	3.3	2.8	2.9	-2.2
8	스페인	70,310	64,551	41,547	3.1	2.4	2.3	-15.6
9	이탈리아	56,200	54,691	39,698	2.5	2.1	2.2	0.4
10	루마니아	48,621	50,399	29,740	2.1	1.9	1.7	-17.4
수입 합계		2,290,966	2,637,178	1,784,597	100	100	100	-4.7

[자료: Global Trade Atlas]

경쟁동향 및 유통동향

체코에는 차체, 도어, 범퍼, 엔진, 기어, 제동 시스템, 배기 시스템, 램프, 시트, 대시보드 등 광범위한 자동차 부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Bosch, Denso, Magna, Continental, Mobis 등 다수의 글로벌 부품 제조 기업이 체코에 진출해 있다. 대표적인 자동차 차체 부품 기업으로는 성우하이텍, International Automotive Components, WITTE, Magna, DURA 등이 있다.

<체코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관련 기업>



[자료: 체코 투자청]

<체코에서 운영중인 주요 자동차 차체 부품 제조기업>

기업명	품목	구분	규모(매출액/직원)
SUNGWOO HITECH s.r.o. (한국)	- 차체 부품(RR FLR, F/APR, S/OTR, CTR FLR 등) - 현대, 기아 등에 공급	Tier 1	- €7억6000만('20년) - 1500명

International Automotive Components Group s.r.o. (룩셈부르크)	- 차체 부품(Pillars), 차량 인테리어 제품	Tier 2	- €3억1400만('21년) - 2100명
WITTE Nejdek, spol. s r.o. (독일)	- 차체 부품(Pressed parts), 도어 핸들, 도어 잠금장치 등 - VW, BMW, Ford, Daimler 등에 최종 공급	Tier 2,3	- €2억4100만('21년) - 1000명
Magna Cartech spol. s r.o. (캐나다)	- 차체 부품(Fascia-board bracket, Floor/Roof/Lock/Door hinge reinforcement 등)	Tier 2,3	- €1억8400만('21년) - 900명
DURA Automotive CZ, k.s. (미국)	- 차체 부품(Pillars, ledges, roof ledges, Structural Components), 도어 프레임, 도어 모듈, 사이드 임팩트 빔 등 - BMW, Ford, Skoda, VW 등에 최종 공급	Tier 2	- €1억7400만('20년) - 1500명
BORGERS CS spol. s r.o. (독일)	- 차체 부품, 차량 인테리어 제품 - VW, BMW, 벤츠 등에 최종 공급	Tier 2	- €1억7000만('20년) - 1800명
Benteler Automotive Rumburk s.r.o. (독일)	- 차체 안전 부품, 차축, 새시부품	Tier 2,3	- €1억6700만('21년) - 1000명

[자료: 체코 투자청, HBI, 각 업체 홈페이지]

자동차부품 유통구조는 기업간 공급계약을 통해 OEM에 최종 납품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다. 각 부품이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1~2차 공급사를 통해 공급하거나 최종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해야하며, 요구하는 품질, 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 유통구조>



[자료: cbi, KOTRA 프라하 무역관]

관세율 · 인증

한국산 자동차 부품(HS코드 870829기준)의 관세율은 한-EU FTA 적용을 받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및 원산지 규정 충족 시) 0% 이며, 체코 내 판매 시 부가세는 21%이다.

EU시장에 자동차 부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구성품, 기술장치, 시스템 등)의 승인 및 시장감시에 관한 EU 규정((EU) 2018/858) 또는 UNECE(UN유럽경제공동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이 해당 지침 및 규정의 기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거쳐 형식승인 마크인 e-mark를 부착할 수 있다.

체코의 형식승인 담당기관은 체코 교통부로, 체코 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체코 시장에 제품이 출시될 수 있다. 승인을 위해서는 체코 또는 해외의 공인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 후 발행된 승인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는, EU 회원국에서 형식 승인을 한번 받으면 모든 EU 회원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코 외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승인을 진행할 수 있다.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마크와 EU회원국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체코의 경우는 E8이 해당된다.

* 체코법에서는 자동차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법률 No. 341/2014 및 차량운행 조건에 대한 법률 No. 56/2001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

<체코의 형식승인 담당기관 및 공인시험기관>

체코 승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홈페이지: www.mdcr.cz - 전화: +420-225-131-380
체코 내 공인 시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KRA CZ - 홈페이지: www.dekra.cz - 전화: +420-267-288-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ZÚ (Electrotechnical Testing Institute) - 홈페이지: www.ezu.cz - 전화: +420-266-104-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ÜV SÜD Czech - 홈페이지: www.tuvsud.com/cs-cz - 전화: +420-545-242-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ZV CZ (Technická zkušebna vozidel) - 홈페이지: www.technicka-zkusebna.cz - 전화: +420-601-166-966

[자료: 체코교통부, EU집행위, 각 업체 홈페이지]

시사점

체코 자동차 협회는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개발, △디지털화 및 데이터화, △유연한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탈피(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를 체코 자동차 산업의 현 도전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체코 자동차 부품 시장은 공급망,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 동시에 전기차 및 첨단기술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어렵지만 중요한 시점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 현재 체코정부는 체코에 배터리 공장(기가팩토리) 건설도 추진하고 있어 배터리 공장이 건설이 실현될 경우 전기차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량화, 디지털화 등 미래차 기술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향후 전기차 및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공급망 진출에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체코 자동차산업협회, 체코 투자청, GTA, 체코교통부, EU집행위, Hospodarske noviny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카타르 자동차 배터리 시장동향

- 우리나라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42%로 1위
- 기후적 요인으로 배터리 수명 짧아 지속적인 수입 증가 예상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HS Code 850710)

시장 동향

카타르의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시장은 자동차 부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가 및 전기 자동차 도입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및 기타 수송용 차량 수입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2021년 빠르게 회복하여 전년대비 약 43% 증가하였으며, 팬데믹 이전 2019년의 수입량과 비교해보아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2021 카타르 승용차 및 기타 수송용 차량 수입 규모>
(단위: 달러)

구분	HSCODE	2019	2020	2021
자동차	8703	1,090,193,904	790,031,714	1,119,473,252
오토바이	8711	9,563,512	10,237,798	17,625,446
중장비	8426	39,629,122	65,536,544	99,900,331
합계		1,139,386,538	865,806,056	1,236,999,029

[자료: Public statistics Authority Qatar]

카타르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9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어, 비교적 외국인들의 거주 기간이 길지 않음에 따라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신차 등록 3년 이후부터는 매년 차량 점검 및 등록증 갱신이 요구되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수입 동향

카타르의 개발계획통계부(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에 따르면, HS 850710기준 2021년도 총 수입액은 3,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2019-2021 카타르 HS Code 850710총 수입량 및 한국 수입량 비교>
(단위: 달러,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점유율	증감률	
					2021	19/20	20/21
1	한국	13,925,486	14,047,087	14,810,718	42.0	0.87	5.4

2	인도	1,907,047	3,042,988	4,993,458	14.2	59.6	64.1
3	튀르키예	3,537,602	2,475,332	3,483,807	9.9	-30	40.7
4	스페인	2,494,327	2,314,053	2,202,010	6.2	-7.2	-4.8
5	중국	1,530,723	1,643,099	1,508,685	4.3	7.3	-8.2
6	이탈리아	1,098,267	822,239	1,483,927	4.2	-25	80.5
7	독일	2,602,951	2,548,076	1,429,235	4.1	-2.1	-43.9
8	미국	1,217,636	865,867	1,190,124	3.4	-28.9	37.5
9	방글라데시	442,925	859,674	968,772	2.7	94.1	12.7
나머지		4,202,911	3,356,964	3,208,656	9.1	-20.1	-4.4
총계		32,959,875	31,975,379	35,279,392	100	-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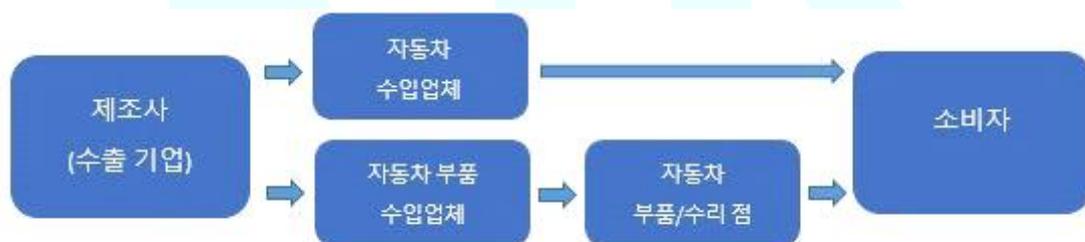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한국에서 수입되는 배터리 양은 자동차 배터리 전체 수입의 약 42%의 시장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약 5.4% 증가했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에 관한 현지 시장 평판은 제품의 고품질, 내구성 및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인지도가 높다. 우리나라를 이어 인도와 터키가 각각 시장점유율 2위, 3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편차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나, 배터리 수입 상위 3개국이 카타르로의 총 수입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쟁 동향

카타르 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가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해 작고, 이미 경쟁이 치열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국가이기도하다. 특히, 2018년 설립된 Qatar Battery Factory는 하루 1,200개, 연간 50만개의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카타르 현지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배터리 제품은 Solite(한국), Exide(인도), Sebang-Rocket & Nova(한국), Varta, Bosch(독일), Panasonic, AC Delco(미국) 및 Amaron(인도) 등이 있다.

유통 구조



[자료: KOTRA 도하]

관세율 및 인증

카타르의 경우 자동차 제품과 관련하여 표준청에서 타이어, 안전벨트, 휠림, 브레이크패드 등 특정 부품에 대해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인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배터리는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배터리(HS CODE 850170 기준)의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진행 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혹은 거래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다.

-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Airway Bill)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견적 송장 및 수입 허가(Pro forma invoice)
- 수입 허가증(Import License)

카타르 세관은 2011년 4월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송장, 원산지 증명서 및 포장 목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발송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통관되지 않고 원산지로 반송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에는 반드시 HS Code가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시사점

2018년 설립된 자동차 배터리 생산 공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산되는 공급량이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외 브랜드 제품들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자동차 배터리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세계 6위 수준의 1인당 GDP와 증가하는 1인당 소득으로 인해 고급 자동차의 수요도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비 부품, 자동차 관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카타르의 한 여름 최대 5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로 인해 자동차 배터리는 비교적 빠른 교체주기를 보인다.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전문 바이어 접촉을 통해 시장진출을 모색하거나, 카타르의 인근 국가인UAE에서 개최되는 'Automechanika Dubai'와 같은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신규 거래를 모색하는 카타르 바이어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자료원: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 Public statistics Authority Qatar,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KOTRA도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중국 연료전지 시장동향

- 중국의 수소산업 육성에 따라 연료전지 시장 전망 좋아

기본정보 및 시장동향

상품명	HS코드	한중FTA	RCEP	최혜국대우
(축전지) 부분품	8507.90	4.2%	7.2	8%

[자료원 : tradenavi]

중국정부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중요기술 중 하나로 연료전지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연료전지가 지닌 제로배출 및 고효율이라는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중국은 3060 정책(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제로)의 달성을 위해 신에너지차 및 연료전지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료전지는 자동차 뿐

아니라, 선박, 열차 등 교통수단, 건축의 전원 및 열공급 등 적용 가능한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연료전지 산업은 아직 상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연료전지차의 생산단가는 여전히 내연차에 비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산업육성책에 따라 연료전지 산업 및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용량은 2017년 37.8MW에서 2021년 172.7MW까지 증가, 연평균성장률 46.2%로 고속성장을 해왔다. 비록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및 산업발전이 더뎠으며 설치량도 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전년대비 118% 증가하며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전기차 구입보조금 지원 등 장려정책에 힘입어 2022년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량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808.5MW에 달할 것으로 고공산업연구소는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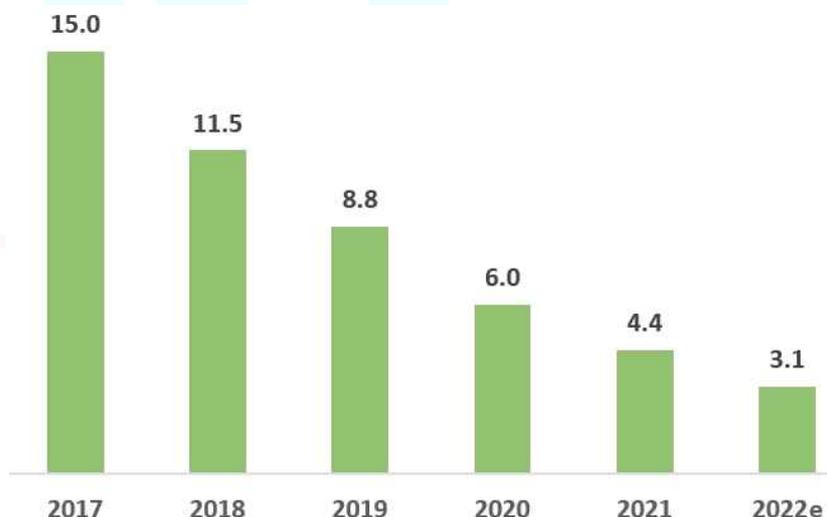
전기차 생산원가는 연료전지의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연료전지의 단가는 2021년 4.4천 위안/KW까지 낮아졌고, 2022년에는 3.1천 위안/KW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연료전지 시스템 설치량 추이 >
(단위 : MW)



[자료원 : 고공산업연구원 수소전력연구소(高工产研氢电研究所), 중상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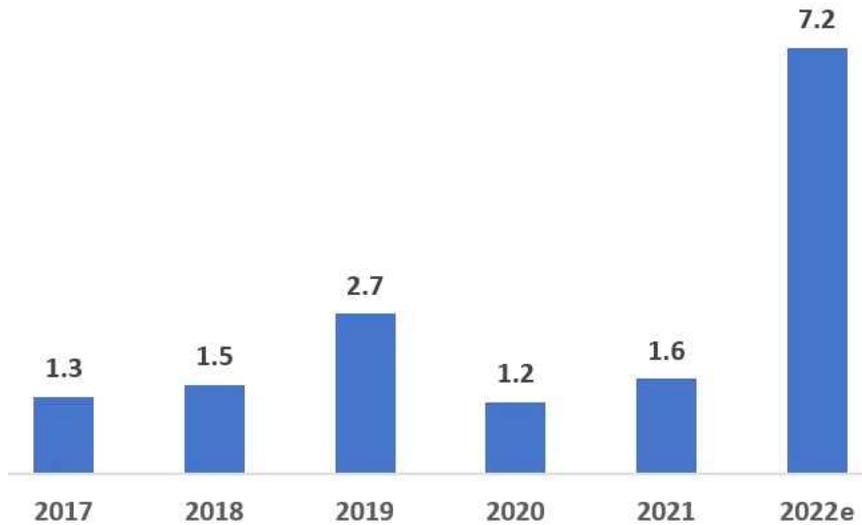
< 연료전지 시스템 원가 추이 >
(단위 : 천 위안/KW)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중상산업연구원]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발전 및 생산단가의 하락에 힘입어 수소연료전지차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0년 및 2021년 중국의 연료전지차 판매량은 각각 1,177대, 1,586대로 2019년(2,737대) 대비 부진했으나, 2022년에는 7,200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연료전지 자동차 판매량 추이 >
(단위 : 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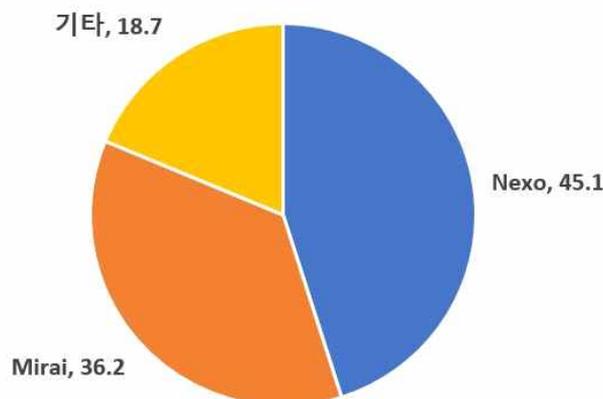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경쟁동향

현재 연료전지 기술분야에서 가장 선두국가는 일본으로, 특허신청 건수는 글로벌 총 신청건수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중국으로 글로벌 신청건수의 22.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료전지차 시장의 경쟁국면을 살펴보면, 현대의 넥쏘와 도요타의 Mirai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넥쏘의 생산량은 22,337대, Mirai의 생산량은 17,933대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의 81.3%를 차지했다. 중국의 주요 생산기업으로는 상치다통(上汽大通), 위통버스(宇通客车), 페이츠자동차(飞驰汽车), 셴룽버스(申龙客车) 등이 있으나, 아직 시장점유율은 높지 않다.

< 2021년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차 주요 브랜드 점유율 >



[자료원 :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SNE Research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설치량을 살펴보면, 2022년 1~8월 287.6GWh로 전년 동기 대비 78.7% 증가했다. 그 중 중국의 CATL(宁德时代)의 설치량은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한 102.2GWh를 돌파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는 2~4위의 수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 이 외에도 BYD, Calb-Tech(中创新航), Gotion(国轩高科), Sunwoda(欣旺达), SVOLT(蜂巢能源) 등 기업까지 총 6개의 중국기업이 10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기업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39.4GWh의 설치량으로 2위를 기록했고, SK On과 삼성 SDI도 명단에 올랐다. 일본기업으로는 파나소닉이 24.0GWh의 설치량으로 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글로벌 전기차 동력전지 설치량 10대 기업 >
(단위 : GWh)

연번	기업명	2022.1~8		2021.1~8		전년대비 증감률
		설치량	점유율	설치량	점유율	
1	CATL (宁德时代)	102.2	35.5%	47.6	29.6%	114.7%
2	LG엔솔	39.4	13.7%	35.8	22.3%	10.0%
3	BYD	36.5	12.7%	12.5	7.8%	192.3%
4	파나소닉	24.0	8.3%	22.8	14.1%	5.3%
5						
6	SK On	18.4	6.4%	9.2	5.7%	99.2%
	삼성SDI	14.2	4.9%	8.9	5.5%	59.7%
7	Calb-Tech (中创新航)	11.6	4.0%	4.8	3.0%	141.2%
8	Gotion (国轩高科)	8.4	2.9%	3.3	2.1%	153.6%
9	Sunwoda (欣旺达)	4.9	1.7%	0.7	0.4%	587.5%
10	SVolt (蜂巢能源)	3.9	1.3%	1.5	0.9%	155.5%
	기타 기업	24.3	8.4%	13.9	8.6%	75.4%
	총 계	287.6	100.0%	160.9	100.0%	78.7%

[자료원 : SNE Research, Gasgoo(盖世汽车网)]

수입동향

중국의 연료전지 수입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2021년 20% 이상 수입이 증가했고, 2022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까지 최대 수입대상국은 일본으로, 2018년의 경우 일본수입 의존도가 72%에 달할 정도로 일본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020년 대(對) 일본수입이 38% 이상 급감했고, 2022년에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본의존도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만큼, 독일, 오스트리아, 베트남, 폴란드 등 여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대(對) 한국수입이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약 38% 증가하며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아울러 대(對) 한국 수입비중도 2018년 17.5%에서 2022년 8월 29.1%까지 높아졌다.

< 축전지 기타 부분품(HS코드 : 850790) 수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연번	국가/지역	2018	2019	2020	2021	2022 1~8	
						금액	증감률
1	한국	89,057	89,102	106,858	120,251	104,951	37.9
2	일본	367,210	284,817	176,539	194,873	90,138	△30.7
3	독일	17,358	30,532	35,290	86,563	71,796	42.8
4	슬로바키아	1,140	8,098	16,152	31,803	22,417	18.2
5	오스트리아	18	160	2,492	15,607	15,729	76.3
6	베트남	459	1,075	5,682	12,071	13,845	89.2
7	프랑스	1,315	1,972	9,091	13,318	8,660	△4.4
8	미국	2,856	4,669	23,521	14,003	5,357	△52.5
9	폴란드	26	50	826	5,291	4,237	48.9
10	체코	236	1,027	3,525	4,854	2,951	△9.6
총 계		508,253	490,266	457,325	549,634	360,388	3.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인증제도 및 유통구조

축전지 부품은 중국 수출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축전지는 위험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위험품으로 분류될 경우 수출시 라벨이나 운송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위험품으로 분류될 경우, 위험물품 취급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며, 화학품안전설명서(Material Safety Data Sheet)와 감정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배터리 수입통관시 제출서류 : 상업송장, 팩킹리스트, MSDS, 계약서, 상품검역의뢰서, 통관의뢰서, 신고서, 검수확인서, 역제제·안정제 무침가 확인서, 위험화학품 수입 경영기업 부합 확인서 등

연료전지 산업체인 중 업스트림은 연료전지 시스템 부품 및 기타 보조설비 생산제조기업, 미들스트림은 시스템집성 및 제조, 다운스트림은 연료전지 완성차 생산 등 구조로 구성된다. 아울러 연료전지 시스템 및 부품은 최종재가 아닌 만큼, 완성차 제조기업에게 납품되고 있다.

관련 정책

정부는 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발전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국무원은 “차세대 중국 에너지발전 백서(国务院关于新时代中国能源发展的白皮书)”를 발표했고, 베이징은 “수소에너지산업발전 실시방안(北京市氢能产业发展实施方案(2021-2025年))”을, 장쑤성은 “수소연료전지차 산업발전(江苏省氢燃料电池汽车产业发展)” 등 문서를 발표하며 산업발전을 장려하기도 했다.

< 규획·목표 관련정책 >

연도	정책명	주요내용
2001	863계획 : 전기차 중대전문 프로젝트 863计划-电动汽车重大专项	연료전지차, 순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삼종삼횡(三纵三横) 전략으로 포함 * 삼종삼횡 : 삼종은 연료전지차, 순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완성차 기술, 삼횡은 통합시스템, 구동엔진, 동력전지 등 핵심기술 지칭
2015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2025	연료전지차의 3단계 발전전략 포함
2016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산업과 서비스 지도 목록 战略性新兴产业重点产品和服务指导目录	연료전지 시스템 및 핵심부품, 완성차, 충전소 및 수소저장설비 등 목록에 포함
2016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기초인프라 발전청서 中国氢能产业基础设施发展蓝皮书	·최초로 암모니아 에너지 산업의 발전로드맵을 포함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대, 연료전지차는 1만대, 수소궤도교통차량은 50대가 목표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천대, 연료전지차 보유량 200만대가 목표 ·2050년까지 수소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완료 및 연료전지차 보유량 1천만대 달성 목표

< 기술지도 관련정책 >

연도	정책명	주요내용
2014	13.5 전기차 규획 “十三五”电动汽车规划	향후 몇년내 분리판 박막표면 변성기술, 차량용 연료전지 내구성기술 개발로 수소충전소 건설 및 연료전지차 시범운행 등 프로젝트 추진
2016	에너지기술혁명혁신 행동계획(2016~2030) 能源技术革命创新行动计划 (2016-2030)	·고효율 암모니아 가스 제조·순화·저장운송 및 수소충전소 등 핵심기술과 저원가·긴수명의 전기화학촉매기술, 전해질막 중합체 기술, 시스템 집적기술 등 확보 ·핵심소재 및 부품, 집적시스템 및 통제 등 핵심기술을 개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기술이 엔진전원, 이동전원, 충전소 등 분야 시범운영 추진

< 세수감면 관련정책 >

연도	정책명	주요내용
2011	중국 차량선박세법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연료전지차 차량선박세 면제
2014	신에너지차 차량구입세 면제에 관한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공고 关于免征新能源汽车车辆购置税的公告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구입세 면제
-------------------------	--------------------

< 재정보고 관련정책 >

연도	정책명	주요내용
2009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차 시범보급 위한 재정보조금 관리 잠행방법 节能与新能源汽车示范推广财政补助资 金管理暂行办法	제로배출 순전기 및 연료전지차에 대해 6만~60만 위안의 재정보조금 차등지급
2014	신에너지차 충전시설 건축 장려 관한 통지 关于新能源汽车充电设施建设奖励的通 知	국가기술표준에 부합하고, 1일 수소에너지 충전 200kg 이상의 연료전지차 수소충전소 신축시 충전 소 1개당 400만 위안 인센티브 지급
2015	2016~2020년 신에너지차 확대보급 위한 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 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 财政支持政策的通知	2016~2020년 연료전지 승용차 보조금은 20만 위 안, 연료전지 상용차 보조금은 30~50만 위안 수준으 로 회복
2018	신에너지차 확대보급을 위한 재정보조정책 조정개선 관한 통지 关于调整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 补贴政策的通知	연료전지 보조금정책에 변화를 주지않고 동일하게 추진 * 재정부, 과기부, 공업및정보화부, 발개위 등 연합발 표

전망

중상산업연구원은 2023년 이후 중국의 수소연료전지 시장규모는 230억 위안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은 수소연료전지 제조에 있어 아직 핵심기술, 특히 양자 교환막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핵심소재인 멤브레인 전극, 분리판, 수소 순환펌프 등 기술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4.5 계획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발전계획을 명문화했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탄소배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둥성은 제조업이 발달하고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지역인데다, 전기차 산업이 중국내 가장 발달하여 수소연료전지 산업발전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2021년 1월 광둥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광저우의 개발구에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인 HTWO 광저우 공장을 설립했다. 2021년 9월 광저우에서 개최됐던 수소경제 협력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광둥성은 수소산업 인프라가 발전했고 산업체인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첫 HTWO 설립지로 광저우를 선택했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광저우를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생산을 위한 산업체인을 발전시키고,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장은 2022년 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연 생산목표량은 6,500기에 달한다.

자료원 : tradenavi,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汽协),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고공산업연구원 수소전

력연구소(高工产研氢电研究所), 중국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SNE Research, Gasgoo(盖世汽车网), 중국질량인증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 KOTRA 광저우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2. 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SIRA) 도입

- 신규 수입관리제도, 모호한 기준으로 수입허가 진행에 어려움 증가
- 국내 기업들의 현지 수입자 재정 상황 파악 필요성 증가

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 도입

아르헨티나 정부는 10월 11일 공표한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에 의거, 기존 수입관리제도인 수입 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으로 대체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도입한 3번째 수입관리제도*로, 일각에서는 이 수입관리제도 시행으로 수입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수입관리제도와 같이 시행에 들어간 외환결제시스템(SIRASE: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 y Pagos de Servicios al Exterior)도 외환규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기존 수입제도

1. 2012.1.~2015.12. 사전수입신고제도(DJAI: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2. 2015.12.~ 2022.10.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기존 수입관리제도 SIMI는 바이어가 수입하는 규모와 판매 능력과의 부적합한 매칭(실제 바이어 매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경우 등) 및 소송을 통한 수입승인 획득 용이 등과 같은 정부 측 애로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규 수입관리제도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신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은 무분별한 수입 억제 및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수입승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상 수입쿼터 관련된 언급이 없어 수입자별 수입 가능한 금액은 현재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수입 관리제도(SIRA)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수입승인 받은 후 90일 내 통관(연장 가능)
수입승인 신청 후 수입승인 여부 확인 가능(아르헨티나 국세청을 통한 확인)
아르헨티나 수입시스템(SIRA)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모든 관련 유관기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국세청도 개입도 가능. 아르헨티나 바이어 수입승인 신청 후 60일 내로 관련 기관이 수입승인 프로세스에 개입 가능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주요 내용:
- 수입자의 재무, 세금납부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해 미지급 세금이나 불공정한 사항을 발견할 시 이의제기 가능
- 과거 언더밸류, 오버밸류 등 불공정한 사례 적발 시 바이어 수입제한 가능
- 수입자 재무 상태를 확인해 신고된 수입규모 이행 여부 확인

- 수입승인 신청 후 국세청의 1차 승인을 거쳐야 다음 단계 승인 가능
 결제 조건 관련, 수입자는 아르헨티나 통관 예정일과 대금 결제가 가능한 일정을 SIRA 시스템에 입력,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 교역국(Secretary of commerce)과 중앙은행에서 송금 가능한 날짜 부여
 10월 12일 이전에 기존 SIMI를 통해 받은 수입승인은 무효처리(수입 진행이 되지 않은 건)

[자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시행령 5271/2022]

이번 시스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수입시스템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국세청의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SIMI A/B로 분류해 2021년/2020년 수입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수입 허가 및 달러 구매를 승인했던 이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신규 시스템인 SIRA는 수입자의 재무상태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되어야* 수입허가 획득이 가능하다.

주*: 1차 승인: 국세청

또한, 이번 수입승인 시스템 개편으로 외환 구매가 필요한 수출입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신규 외환구매 관련 계좌(Cuenta Corriente Única de Comercio Exterior) 개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외환구매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입승인 허가 여부(SIRA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뒤 외환구매가 승인된다.

수입승인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현재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수입대금 송금' 관련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스템의 경우 SIMI A로 승인받을 시 수입대금 선송금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신규 시스템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수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른 외환구매·송금 승인 예정으로, 수입승인 허가 전까지는 선송금 가능 여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수입비자동허가품목(LNA) 확대 추진

신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입비자동허가 품목도 확대 수순을 밟고 있다. 수입허가제는 이전 수입관리제도(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와 함께 도입된 제도였는데, 이 규제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일반적인 수출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감 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 수입을 억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HS CODE 기준으로 수입자동허가, 비자동 허가품목이 나뉘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승인 기한이 최대 60일로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은 법령 26/2022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한 일련의 재화들에 대한 교역현황 평가를 시행하고 현지 필요성·긴급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편입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비자동수입승인 확대 조치로 인해 1만282개의 HS Code 중 6088개(59%)가 자동수입승인, 나머지 4194개(41%)가 통제를 많이 받는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분류됐다.

<비자동수입승인(LNA) 편입 품목>

HS Code*	설명
02	육류
18	코코아 및 부산물
22	알코올 음료(와인, 증류주)
28, 29	화학제품
38	살충제, 농화학제품
40	타이어 및 고무 부산물
44	목재 및 부산물
48	종이 및 부산물
51	섬유(방적사, 직물)

52	섬유(면)
53	섬유(천연)
54	섬유(합성)
55	섬유(인조파이버)
56	섬유(충전재, 펠트, 로프)
57	섬유(카펫)
58	섬유(특수직물)
59	섬유(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처리)
60	섬유(편물)
61	섬유(의류 및 부속물)
62	섬유(기타 의류 부속물)
63	섬유(기타 섬유제품)
64	제화
73	철강제품(부산물)
76	알루미늄(부산물)
82	철강으로 만든 제품 및 공구(도구)
84	기계 및 부분품(엔진과 그 부분품, 터빈, 펌프, 연구실용 장비, 원심분리 및 건조기계, 무게 재는 기계, 살포기, 도로용 기계, 건설용 기계, 농업용 기계 및 크레인, 인쇄기계, 복사기, 섬유산업용 기계,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용 기계)
85	모터 및 전기발전기, 전기변환기, 가전제품, 용접기, 휴대전화, 통신용 장비 및 부분품, 전자부품 및 컴퓨터용 부품, 휴대용 컴퓨터
86	차량과 부분품(철도용, 기차)
87	차량(승객 및 제품 운송용, 부품 및 부속품)
88	항공기
89	선박
90	광학 및 측정기계
91	시계
92	악기
94	가구
95	완구 및 스포츠용 장비(테니스, 골프, 스키, 기타)
96	기타 제품(문방구, 칫솔)
97	예술품 및 수집품

주*: 해당 HS Code에 속하는 모든 품목이 비자동수입승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특정된 품목에 한해 적용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

시사점

현지 주요 수입자·트레이더·통관사와 접촉 결과, 현재 SIRA 수입승인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 통관업체 중 하나인 G사에 따르면 신규 수입관 제도인 SIRA가 도입된 지 2주간 50건 이상의 수입허가를 요청했으나 모두 다 보류상태로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승인을 받은 트레이더 I사의 경우 승인을 받았으나 수입대금 송금을 180일 이후에 진행할 수 있어 수입승인 취소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규 시스템의 경우 수입 송금 승인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신규 수입관리 시스템 정착 추이 등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교역국 공식발표 자료, 아르헨티나 국세청 시행령 5271/2022, 아르헨티나 수입협회(CIRA), 일간지(Infobae, iProfesional, La Nacion, Perfil),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